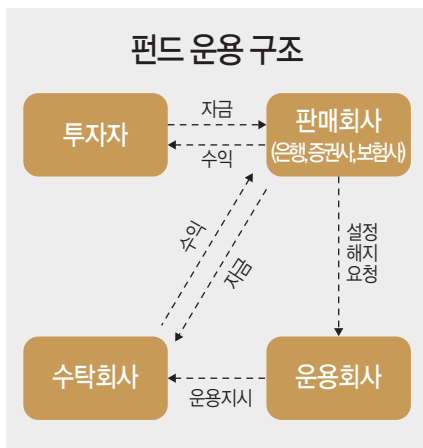


# 지뢰밭된 사모펀드 1만개 전수조사... '순자산만 424조'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금융당국, 4차 교차점검 실시 예정 투자자 보호 위한 프로세스 개선 검사가능한 유관기관 인력지원 검토



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1만282개 사모펀드를 전수 조사한다.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모펀드 투자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유관기관과 사모펀드 조사 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사모펀드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한 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수조사는 전문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문사모운용사는 총 237곳, 사모펀

드는 1만282개, 순자산은 424조원이다.

### ◆운용사-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사 '4차 교차 점검'

금융당국은 우선 사모펀드의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 등을 대상으로 4차 교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모펀드에 대해 서로의 자산내역과 서류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보겠다는 것.

펀드의 운용주체는 크게 투자자에게 펀드를 파는 판매회사, 설정금액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를 결정에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지시에 따라 자산을 매매하고 보관·관리 하는 수탁회사, 그리고 운용사가 이 같은 내역을 알려주면 펀드기준가와 수익률을 산정하는 사무관리회사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경우 운용사가 수탁회사와 사무관리회사에 전달한 내용이 다를 경우 알방도가 없다. 실제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를 보면 사무수탁을 맡은 위탁결제원에는 공공기관 매출채

권으로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펀드재산 관리를 맡은 수탁회사 하나 은행에는 부실채권 매입을 지시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3조에 따르면 수탁회사는 운용사의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의무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사모펀드에 한해서는 수탁사 의무는 특례조항으로 면제된다.

수탁사가 사사건건 입출금 이유를 확인하고, 몇가지 정황만 놓고 위법의도를 파악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펀드재산목록과 사무관리회사에 있는 펀드명세서를 직접 대조해보는 사전작업을 거친 후 자산 불일치가 발견되는 운용사를 상대로 현장검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규제강화보단 문제 파악 주력

다만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이다. 사모펀드가 비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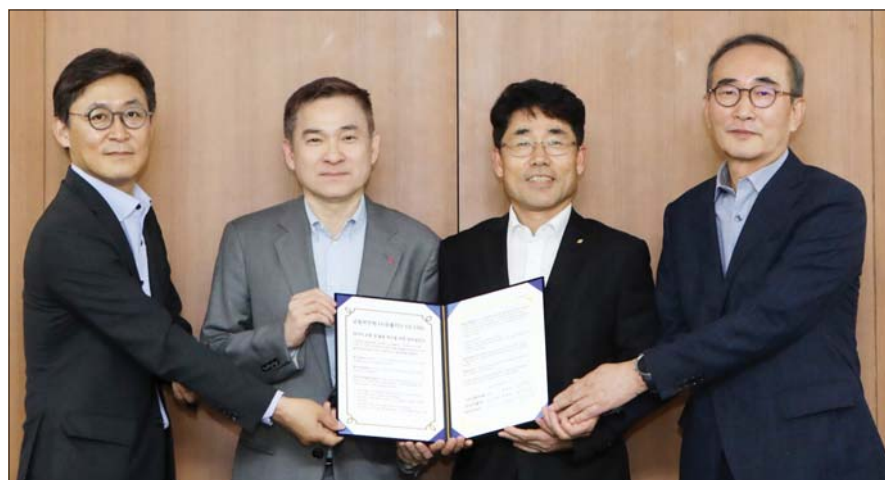
기업,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모험자본 역할을 하는데다, 저금리시대 수익률이 높은 대체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순기능은 살리되 사모펀드의 문제를 제대로 짚어 투자자보호를 위한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운용사가 표면적으로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위법을 저지를 만한 구조를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우선 4월 마련한 개선안부터 추진하고, 추후 조사를 통해 통합적인 문제점이 발견되면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현장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인력은 32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 등 검사 기능이 있는 유관기관의 인력을 지원받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인력을 지원받을 경우 검사 기간이 3~4년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oul.co.kr



지난 25일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왼쪽부터)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 LG유플러스 대표이사 하현희 부회장, 금융보안원 김영기 원장, LG CNS 대표이사 김영섭 사장이 데이터 유통 및 활용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 LGU+-CNS, 빅데이터 생태계 발전 '맞손'

통신·금융·제조 데이터 융합사업 거래소 통한 데이터 유통·활용 활성화

LG유플러스와 LG CNS가 금융데이터거래소 운영자인 금융보안원과 통신·금융·제조 데이터 융합 사업 추진을 위해 손잡는다.

LG유플러스는 금융보안원, LG CNS와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본사에서 LG유플러스 대표이사 하현희 부회장, 금융보안원 김영기 원장,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 LG CNS 대표이사 김영섭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 유통 및 활용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한국판 뉴딜'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개방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유통과 활용 활성화를 통한 빅데이터 생태계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LG유플러스와 금융보안원, LG CNS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 수요 및 활용 사례 발굴 등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에 노력한다. 이외에도 ▲ 데이터 결합, 분석, 컨설팅 등 데이터

활용 ▲통신·금융·제조 데이터의 융합 시나리오 발굴 및 융합데이터상품 개발 협력 ▲금융데이터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상품 유통과 데이터 유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 간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통신 데이터를 금융 데이터와 결합하고, 데이터 상품을 개발해 금융데이터거래소를 통해 유통할 예정이다. 또 고객 라이프스타일과 IPTV 시청행태 등 통신 데이터를 상품화해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LG CNS는 이번 협약으로 이종 산업 간 융합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LG CNS는 통신·금융·제조·유통 등 다양한 유형의 빅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공하고 분석하는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통신·금융·제조 데이터 결합으로 다양한 융합 데이터 상품 개발과 금융 데이터 시장의 성장이 예상된다.

한편 LG유플러스는 통신·금융·유통 데이터 융합을 추진, 거주자의 소비 성향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서울시 상권별 거주자 소비성향 데이터'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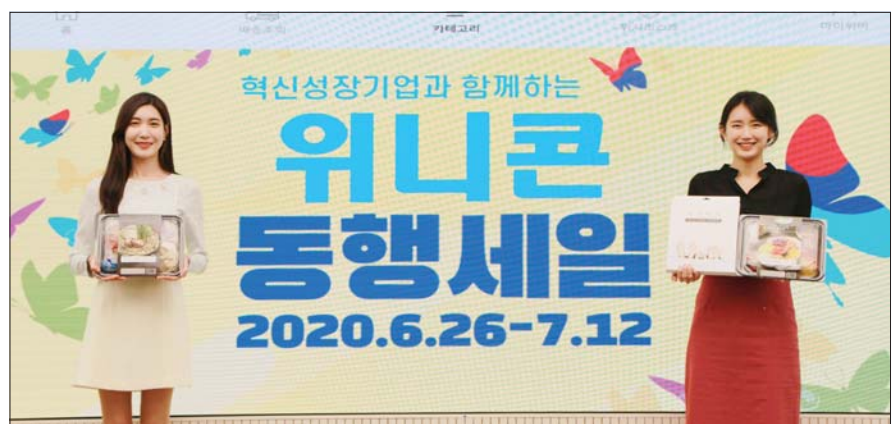
## 우리금융, 혁신성장기업 지원 '위니콘 동행세일'

유니콘기업 지원, 내수시장 활성화 기업가치 1조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우리금융그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성장기업을 지원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위니콘(Wenicon) 동행세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위니콘은 우리를 뜻하는 '위(We)'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유니콘(Unicorn)'의 합성어다. 미래 대한민국을 대표할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금융그룹이 투자, 지원 및 육성중인 혁신성장기업을 지칭한다.

위니콘 동행세일은 비대면 중심의 한국형 세일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 발맞춰 다음 달 12일까지 약 2주간



우리금융그룹 직원들이 위니콘 동행세일에 판매될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은행에서 투자한 친환경 소재, 유통구조 혁신, 첨단 AI 기술 등을 보유한 다수의 혁신성장기업이 참여했다. 간편 조리식 밀키트, 육류, 수산물,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판매한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혁신성장기업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 서비스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을 이끌어 나갈 리더"며 "앞으로 우리금융그룹은 혁신성장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석 수습기자 ysl@

## 올해 우수인증설계사 중 6551명 '삼성화재'

손보사 우수인증설계사 3명 중 1명

삼성화재는 2020년 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선발 결과 총 6551명의 우수인증설계사를 배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체 보험업계를 통틀어 최대 인원으로, 손해보험사 전체 우수인증설계사 3명 중 1명이 삼성화재 소속인 셈이다.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는 보험설계사의 전문성 향상을 유도하고 보험상품의 완전판매 및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는 한 회사에서 3년이상 활동하고 불완전 판매가 한 건도 없어야 한다. 또한 보험모집 실

적이 우수하고 모집한 보험계약의 13회 차 유지율이 90%를 넘어야 한다.

삼성화재는 우수인증설계사 배출을 위해 혁신적인 시스템과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해왔다.

PC와 태블릿 기능이 합쳐진 갤럭시북을 활용한 업계 최초 24시간 디지털 영업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상담부터 계약체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전문 RC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도 지원한다. 생애설계 컨설팅, 금융상품 전문과정 등을 1년간 교육하고 사내 보험전문대학(SSU) 및 성균관대와 연계한 MBA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나유리 기자

### NH농협은행

#### 급여이체 고객 대상 이벤트

NH농협은행은 8월 말까지 급여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벤트는 당행 입출금계좌로 급여를 처음 입금 받고(건당 50만원 이상) 인터넷·스마트뱅킹 또는 올원뱅크에서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드롭키 커피머신과 LG 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이벤트 응모 고객 중에서 추가로 NH오픈뱅킹에서 타행계좌 등록한 고객을 추첨해 클럭 마사지기, 모바일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9월 중 농협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안성미 기자 smahn@